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1월28일(넷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김성진 집사
찬양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찬송	만유의 주재(32장)	다 함께
*교독문	66번	다 함께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272장)	다 함께
기도		장연재 형제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542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인 2: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마서 6장 3-5절)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407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2월 주일 기도 담당

하재혁 집사(4일), 김영자 권사(11일),

현윤경 집사(18일), 김동진 형제(25일)

-금주 읽을 성경: 시편 108-114편,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기도(사무엘)

사무엘의 몸은 이제 늙었고
새로운 왕이 생김으로서
온 백성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 자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롭지 않았고
그가 진정 할 일이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기도하는 골방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언제나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만약
다른 일이 크게 보였더라면
그는 크게 섭섭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앞의 기도하는 시간,
이것 이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참된 기도, 힘 있는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는
먼저 그가 그 어디에 역점을 두고 사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선택은 옳았으며
먼 후일에도 그는
후회할 점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그 무엇보다도 크게 택하는 자는
이제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래 잘 하는 자

한남경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삼하23:1).

올해는 옛 이스라엘의 다윗처럼
“노래 잘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노래할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노래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래할만한 환경을
바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노래할만한 환경이어서 노래한다면
그 노래가 무어 그다지
아름답겠습니까?
그날까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러야 할 근거가 있다면
그분이 언제나 신실하게
나의 주님 되어주심 외에
달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이
참으로 기구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았다면,
주님에 의해 영광스럽게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기 위해서는

줄을 팽팽히 당겨야만 하듯이
나의 삶이 때로는 팽팽히
당겨지고 조여져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의 노래를
그토록 듣기 원함이었음을
왜 그리도 몰랐던 것일까요?

그날에
“너의 노래는 정말 아름답더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오를까요?

잘 가라 세상아

배현화(중3)

세상이 날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세상 유혹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
저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손 꼭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두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항상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렵니다.
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팔 루 스 교 회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1월 28일(4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